



“인간은 인간의 미래다” - 프랑스 시인 풍주(Ponge)

“우리의 미래는 순박한 믿음이나 희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내는 ‘現 세계’인 것이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한 자락을 있게 해준 베이징 올림픽은 17일 동안 끊임없는 뉴스거리를 만들어 냈다.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드는 이유는 순간 순간 승리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들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수가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어느 누구도 승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른 건 ‘희망’의 크기가 아니라 땀과 노력의 결실, 즉 승자가 만들어낸 ‘행위’의 종합인 것이다.

인간이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 자유(freedom)를 완전히 확보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만 보더라도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질곡을 겪어야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신’과 ‘제도’에 종속된 제한적 주체로서 존재해야만 했었다. 20세기 철학 사조인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선택’과 ‘무한책임’을 의미하며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를 내세워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관념적 희망이나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서만 규정될 수 있는 ‘現 세계’인 것이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캔버스 위에 붓 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는 이미 예술가일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순박한 믿음이나 희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내는 ‘現 세계’인 것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CK의 미래는 곧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현재 선택과 책임, 행동의 총합이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우리의 미래다. ✍

Written by C.E.O 노상중 (James Roh)

